

# 한국 자연환경보전협회 50년간의 자연환경 보존 활동 -조수(鳥獸)류를 중심으로-

조 삼 래

부회장, 공주대학교 교수

## 서 론

우리나라에서 野生鳥獸를 포함한 자연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공식적인 민간 기구는 아마도 본 협회가 아닌가 싶다. 1965년에 우리나라의 자연 및 자연자원훼손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한국 ‘자연본전위원회’를 발족하게 되었고 그 후 1968년에 자연보존협회의 기구로 발전하게 되었다. 본 협회는 우리나라의 자연 및 자연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국민들로 하여금 자연 및 자연자원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계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변의 여러 도움을 받아 1년에 4번 “자연보존”지(誌)를 발간하게 되었다. 그동안 2011년 12월까지 156호의 “자연보존”지(誌)가 발간되었으며 부설 연구소에서는 “한국자연보존 종합학술조사보고서”를 시작으로 2001년까지 42호의 학술지를 발간하였다. 그 후 1979년 “한국자연보존연구보고서”로 학술지명을 바꾼 후 2001년까지 21집을 발간하였으며 1996년부터는 “한국생물상 연구지”도 발간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인 자연환경보전협회의 활동은 국내의 그 어느 민간 단체보다 뒤지지 않는 자타가 공인하는 사단법인 단체임을 자부한다. 본 필자는 그 동안의 자연환경보

존 협회의 업무 중 주로 鳥獸類를 중심으로 펼쳐온 보존활동을 시대별로 정리하여 보았다.

## 본 론

### 자연보존지를 통한 시대(년도)별 활동 내용

본 내용은 이제까지 발간 된 자연보존지에 게재 된 내용을 호(시대)별로 분석하여 야생 鳥獸類에 관련 된 보존활동을 1) 주제, 2) 필자, 3) 주요내용 등을 요약하여 아래와 같이 기술하였다.

#### ◆ 제 1호(창간호, 1968년 12월 발간)

- 주제 : <사라져 가는 한국의 鳥獸類와 그의 시급한 보호문제>. 절종위기에 놓여 있는 종류
- 필자 : 원병오(경희대학교 교수)
- 내용 : 필자는 본란에서 지구상에서 절종되었거나 절종위기에 처한 鳥獸類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조류가 8,600종, 짐승류(포유류)는 3,200종이 분포하며 남한에서는 조류가 360종 그리고 짐승류는 60여종이 분포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이 중 한국에서 멸종되었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조류를 아래와 같이 기재하고 있다.

\*멸종된 종 : 원앙사촌, 범(호랑이- 백두산지역에 한해 생존함)

\*절종위기 조류 : 따오기, 황새, 크낙새, 두루미, 멧황새, 흑비둘기, 노란(랑)부리 저어새(및 저어새), 습새

\*희귀조류 : 재두루미, 곤이(고니) 및 흑 곤이, 큰 곤이, 너화, 독수리

\*절종위기 수류 : 산양, 사향노루, 늑대, 표범

◆ 제 2호(1970년 10월 발간)

• 주제 : <멸종위기에 있는 동물>- 늑대, 범(호랑이)

• 필자 : 원병오(경희대학교 교수)

• 내용 : 한국에서의 늑대와 범(호랑이)의 실태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늑대(*Canis lupus Chanco Gray*)와 승냥이의 분포 및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매우 희귀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범(호랑이, *Felis tigris coreenis Brass*)의 분포권과 2차 대전 전의 각 지역별 포획개체수와 분류학적 위치와 형태를 기재하고 있으나 전후 우리나라에서의 생존 기록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 제 3호(1972년 5월 발간)

• 주제 : <멸종위기에 있는 동물>-흰수염고래

• 필자 : 원병오(경희대학교 교수)

• 내용 : 흰수염고래(長鬚鯨) *Balaenoptera physalus* L.의 국내·외적인 분포 및 실태를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에서는 서해, 대흑산도, 대청도 동해의 울산, 장전, 신포 평강군 유진 등에서 포획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멸종은 주로 포경업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제 4호(1972년 8월 발간)

• 주제 : <절종위기에 있는 동물>

• 필자 : 원병오(경희대학교 교수)

• 내용 : 느시(너화, 들칠면조) *Otis tarda dybowskii Tacjannowski*의 분포, 생태 및 국내·외적인 실태를 설명하고 있다. 한국에는 2차세계대전시까지의 전국 각지에 널리 분포하는 월동조류이었으나 1910년 일본의 식민지 통치가 시작 된 이래 감소되어 한국동란 이후에는 아주 드문 희귀조류가 되어 이제는 세계적으로 보호가 요구되는 보호조류로 되었음을 소개하고 있다.

◆ 제 7호(1975년 3월 발간)

• 주제(1) : 재두루미

• 필자 : 이정우(조류전문가)

• 내용 : 본 호에서는 표지사진을 비롯하여 재두루미에 대한 특집을 다루고 있다. 필자는 재두루미에 대한 일반적인 분포와 함께 번식지 및 월동지에서의 실태를 설명하고 있으며 1973년 11월말 한강하류에서 316마리, 1974년 12월에는 G.W. Archibald(국제두루미보호재단 이사장) 박사와 함께 교하면 문발리 일대에서 1500여 개체의 재두루미 대집단을 관찰 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 주제(2) : <두루미 낙원의 꿈>

• 필자 : 金憲奎(본 협회 이사, 이화여대 자연사박물관장)

• 내용 : 우리나라의 한강하류와 일본의 九州 남단의 鹿兒島縣 出水市 荒崎가 세계적으로 중요한 두루미류 월동지임을 설명하고 있다. 역시 G.W. Archibald 박사와 함께 파주에서 관찰한 1500여 두루미집단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1927년에 약 440여 개체에 불과하던 두루미 개체수는 1957년의 조사에서는 약 2,834개체로 증가한 일본의 荒崎(아라사키) 지역의 두루미류 월동지를 소개하고 있다. 필자는 한강 하류와 荒崎(아라사키) 평야를 두루미의 낙원으로 만들기 위해 양국정부는 물론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

고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주제(3) : <우리나라의 자연자원 다람쥐>
- 필자 : 오창영(창경원 수의관, 본 협회 이사, 이화여대 자연사박물관장)
- 내용 : 우리나라 다람쥐의 번식생태와 작고 귀여운 모습의 외형적 특징으로 관상적 가치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한편 필자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다람쥐를 생포하여 애원동물용으로 일본을 비롯한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는 점을 아쉬워하고 있다.

◆ 제 9호(1975년 10월 발간)

- 주제 : <한국 희귀 조수류의 실태>
- 필자 : 원병오(경희대 교수)
- 내용 : 본 호는 “한국의 희귀조수류의 실태”란 주제로 그 내용이 이루어졌다. 즉, 한국에서 희귀 및 절종위기에 처해 있는 鳥類 19종과 獸類 8종을 수록하고 있다. 필자는 위의 종에 대하여 1) 전후의 관찰 및 채집 기록 2) 현실태 3) 사육 실태 및 생존개체의 전망 등을 아래와 같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희귀 조류]

1. 노랑부리저어새(*Egretta eulophotes Swinhoe*)

1975년 당시까지 평북(4회), 경북(1회), 경기 및 인천(1회)의 관찰 기록을 기재하고 있다. 森(1938)에 의하면 평북에서는 팽이갈매기 다음으로 흔한 번식조류였다고 설명하나 남한지역에서는 극히 소수가 봄. 가을에 통과하는 종으로 기록하고 있다.

2. 황새(*Ciconia ciconia boyciana S.*)

충북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무수동에서 1970년까지 번식했으나 1971년 4월 4일 안타깝

게도 밀렵자에 의해 수컷이 사살되어 우리나라의 번식개체는 야생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그 동안 기록에 의하면 본 종은 겨울이면 약 1~8개체가 월동을 위해 남하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3. 먹황새(*Ciconia nigra L.*)

본 종은 1962년 2월 6일 경북 청도에서 수컷 1개체가 밀렵되는 등 북부의 번식 집단이 한국에서 밀렵되는 등, 전후 희생되는 먹황새가 많았음을 설명하고 있다. 1965년 6월 3일에는 가송리 천마산 절벽바위에서 부화한 새끼 두 마리와 어미의 사진이 촬영되기도 했다. 유일하게 경북 안동군 도산면 佳松里에서 번식하는 한 쌍이 보고(森, 1938) 된 이래 번식장소를 이동해 가며 1968년까지 번식하였다고 한다.

4. 저어새(*Platalea minor T. & S.*)

본 종은 1959년 12월 경남 진해에서 어린 개체 1마리를 채집한 기록(Fennel Coll)이 있다. 그리고 1968년과 1969년 12월 낙동강하구에서 5개체, 1973년 6월~7월에 2~3개체가 역시 이곳에서 관찰 되었다고 기재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차세계대전시까지 평북 서해 무인도인 덕심과 전남 위도에서 집단번식 하였다는 기록은 있으나 전후에는 확인 되지 않았다고 기재하고 있다.

5. 따오기(*Nipponia nippon T.*)

본 종은 1954년 남대문시장에서 구입 된 수컷 1점, 부산광복동(1957년) 모 총포사에 1점 표본이 있었으며 전쟁 후 군에 의해 포획되어 표본으로 제작 된 1개체의 표본이 서울시내 표본상에 1960년대까지 있었으나 그 후 행방을 알 수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던 차에 필자는 1966년 2월 10일 필자는 경기도 문산 북부 비무장지대(DMZ)에서 채식중인 1마리의 따오기를 관찰했으며 G.W. Archibald는 1974년

12월 판문점 부근 대성동에서 4개체를 관찰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위의 실태로 보아 전후에 간혹 1~2마리가 중부 DMZ 부근에 도래하였다고 하나 현재는 자취를 감추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 6. 흑기러기(*Branta bernicla orientalis* T.)

본 종은 전남 여수와 거제도 사이 연안, 전남완도군 보길도 해안, 부산과 여수사이 해상, 목포와 완도 간 해상 등 주로 우리나라의 서남해 연안을 중심으로 적게는 3마리에서 많게는 60여 개체 무리로 규칙적으로 도래하여 월동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 7. 고니류(큰고니, 고니, 흑고니)

큰고니는 경남 창원, 경기도수원, 강원도 속초 및 영랑호, 낙동강 하류, 금강 하류, 전남진도 등 전국에 걸쳐 분포하며 적게는 1~5개체의 소규모 개체로부터 약 2,000개체 이상의 대집단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게 관찰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한편 고니는 큰고니의 무리에 소수가 섞이기도 하나 매우 소수의 집단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흑고니는 강원도 강릉경포대에서 1968년 1월 24개체와 1974년 2월 8개체 등을 관찰했다고 기술하고 있다(원, 1974, 田久保, 1974).

#### 8. 두루미류(*Grus japonensis* (P.L.S. Muller)

두루미는 판문점, 전남 무안, 경기도 파주군 문산 그리고 강화도(Gore, 1968) 등지에서 1~30여 개체가 관찰 되었다고 기재하고 있다. 흑두루미(*Grus monacha* T.)의 경우는 1959년 경북 영천부근과 1970년 1월에 경남 김해 등에서 포획된 보고가 있었으나 도래 실태 및 이동군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재두루미(*Grus vipo* Pallas)는 1958년 1월 경남 하동군, 전남 완도군, 무안군, 경기도 김포 및 강화, 파주군, 낙동강 하구 삼각주 등의 관찰 기록을

소개하고 있다.

#### 9. 너화(느시, 들철면조) *Otis tardo dybowski Taczanowski*

필자는 1968년 2월 강원도 속초지방에서 4개체, 1970년 11월에는 경기도 강화도에서 7개체를 관찰했고 1974년 1월에는 서해 연평도에서 1개체가 생포되어 창경원으로 보내져 사육되었다고 한다. 본 종은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상당수가 존재했으나 엽사들에 의해 남획되었다고 한다.

#### 10. 검은 머리물떼새(*Haematopus ostralegus osculans* Swinhoe)

본 종은 2차세계대전시 까지만 해도 한국의 서해 연안에서는 드물지 않게 번식하는 여름새로 여겨 왔으며 일부 집단은 한국 서남단 전 지방에서 월동한다(Austin, 1948). 그 후 한국 동란 이후에는 급감하여 매우 드물게 되었으며 군산앞바다 고군산 군도, 경기도 강화군 대송도, 충북 청원군 미호천 그리고 낙동강 삼각주 등지에서 5~20개체의 무리로 관찰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 11. 뿔 쇠오리(*Synthliboramptus wumizusume* T.)

본 종은 1884년 4월 경남 남해 앞바다에서 2 개체가 채집되었을 뿐(Clark, 1910)이었는데 1974년 3월 경남 충무 앞바다에서 7개체가 관찰되어 무인도에서 번식 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 12. 흑비둘기(*Columba janthina janthia* T.)

본 종은 울릉도와 서남해 도서에 국한 하여 번식하는 동북아시아의 특산 아종으로 울릉도, 전남 완도군 보길도, 북제주군 추자도, 신안군 소흑산도 등에서 관찰되었음을 기술하고 있다. 필자는 이 당시 한국에 약 300여 개체 내·외

의 집단이 서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13. 까막딱따구리(*Dryocopus martius martius* L.)**

본 종은 한국의 중부 이북에서만 번식하고 중부 이남에는 이동시 잠시 들르는 종으로만 알려졌으나 최근 충북, 부산 구덕산, 전북 내장산 등지에도 서식함이 확인되어 남부 지방에서도 번식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14. 크낙새(*Dryocopus javensis richardsi* Tristram)**

본 종은 1966년 5월에 설악산에서 경희대 조류 조사반에 의해 1회의 관찰 기록이 있었으며 경기도 광릉에서는 1970년 5월에 역시 경희대 조류 조사반에 의해 처음으로 정체가 확인 된 이래 1975년까지 매년 이곳에서 번식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필자는 본 종에 대한 번식생태를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15. 팔색조(*Pitta brachyura nympha* Temminck and Schlegel)**

필자에 의하면 본 종은 제 2차 세계대전시 까지 황해도, 평남, 제주도 한라산 등에서 채집한 기록이 있고 한라산에서는 적은 수가 번식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 후 경남 거제도 학섬에 다수의 팔색조 집단이 도래하여 번식한다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경기도 광릉, 전북 덕유산, 개성 박연폭포, 광주 무등산 등에서도 관찰 기록이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필자는 특히 거제도 노자산의 번식 실태를 비교적 자세히 기재하고 있다.

**[ 한국의 희귀 포유류 ]**

**1. 늑대(*Canis lupus chanco* Gray)**

늑대는 제 2차 세계대전시까지 함북, 북한의

중부 및 북부, 황해도 평산군 한포 등지에서 관찰 한 기록이 있다. 전후에는 경기도 광릉, 경북 영주에서 9개체를 포획하여 창경원에서 사육 증식하여 국내의 타 동물원이나 일본 등과 교환하기도 했다고 한다.

**2. 여우(*Vulpes vulpes peculiosa* Kishida)**

본 종은 한국 특산 아종으로 2차 대전시까지 한국의 북부와 중부 및 경기도 고양군 등지에 분포함을 기재하고 있다. 본 종은 경남 거제도는 물론 한국 전역에 흔하게 분포하였으나 2차 세계 대전 후 개체수가 급감하였고 6.25 후에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식량증산을 위한 쥐잡기 운동 시 쥐약에 의한 2차적인 피해와 무분별한 남획에 의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2. 곰(*Selenarctos thibetanus ussuricus* Heude)**

본 종은 한국, 시베리아의 아무르 우스리지방, 중국 동북 및 북부지방 등지에 분포 하였으며 한국에는 지리산과 평남북 및 함남북도에 이르는 전역의 고준 지역에 서식하나 매우 희소해 졌다고 기술하고 있다.

**3. 수달(*Lutra lutra lutra* Linnaeus)**

본 종은 유럽 및 시베리아 분포권과 간도, 일본 및 한국 등에 분포되었으며 한국에는 전역에 걸쳐 해안과 하구의 바위 구멍 평지에서 심산에 이르는 개천가에 서식한다고 했다. 2차 대전 전 까지 한국의 부산 및 한국북부 및 중부 등지에 분포함을 기술하고 있다.

**4. 표범(*Panthera pardus orientalis* Schlegel)**

한국, 아무르 지역, 시베리아 동부지역에 이르는 극동지역에 걸쳐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황해도, 전남 그리고 경기도 광릉 등지에서의 기록이 있다. 그 당시 남한 지역에서는 지리산

이나 설악산에서 극히 일부가 생존 할 것으로 추측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19세기만 해도 러시아의 극동지역 남부에서는 해마다 2~3개체가 포획되었으며 현재는 극동지역에 약 10~15개체만이 생존 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5. 사향노루(*Moschhus moschiferus parvipes* Hollister)**

본 종은 2차 대전시까지 전남 목포 부근의 산과 강원도에 분포한 기록이 있다. 북한의 평남북, 함남북, 강원도 및 황해도 등에 소수가 분포하고 있으며 남한에서는 충북 영동군, 경기도 고양군, 지리산이나 기타 지역에 서식한다는 보고가 있으나 증거가 없음을 기술하고 있다.

**6. 대륙사슴(*Cervus nippon hortulorum* Swinhoe)**

한국, 중국 동북지방 및 시베리아 인접지역 및 제주도 등지에 분포 하였으나 제주도는 1915~1916년경 큰 눈이 왔을 때 일본인 樺島에 밀렵 된 것을 마지막으로 사라졌다고 기술하고 있다.

**7. 산양(*Naemorhedus goral raddeanus* Heude)**

본 종은 한국의 경우 중부 이북의 전역에 걸쳐 분포하였으나 폭설 때 마다 수 10마리씩 남획된 결과 현재는 매우 희소해 졌다고 기술하고 있다. 강원도 설악산, 오대산, 대관령 일원의 고릉지대에서 적지 않은 수가 서식한다고 했으나 민간인에 의한 밀렵이 성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대로 방치하면 국지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산양은 절멸 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여 국방부와 강원도에 산양에 대한 특별보호조치를 요구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 제 10호(1975년 11월 발간)

- 주제 : <우리나라 동물자원(땃)>

- 필자 : 오창영(창경원 수의관)
- 내용 : 필자는 우리나라 땃의 일반적인 습성, 형태 그리고 번식 생태에 대해 자세히 기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땃의 외형적 아름다움에 대한 관상가치 및 활용 가치를 미사여구로 잘 표현하고 있다.

◆ 제 15호(1977년 2월 발간)

- 주제(1) : <전통예술에 나타난 두루미>
- 필자 : 정병욱(서울대 인문대 교수)
- 내용 : 본 ‘자연보존지 제 15호’는 두루미에 대한 특집 내용을 싣고 있다. 필자는 두루미의 고고 한 자태, 장수의 상징 등 문화 예술성을 미사여구로 잘 표현했고 그 중 많은 부분을 학춤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 주제(2) : <한국두루미 보호위원회 활동 결과>
- 필자 : 루이. 에드워어즈(한국두루미보호위원회 부위원장)
- 내용 : 1976~1977년 우리나라의 호남정유 영업소 상무로 파견근무를 한 루이. 에드워어즈씨의 두루미보호위원회의 활동상황을 보고서로써 작성한 내용이다. 두루미가 도래하는 1976년 10월부터 익년 2월 동안 관련 부서의 지인들과 협의하여 두루미의 관찰 및 먹이 공급과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 제 18호(1977년 7월 발간)

- 주제 : <원앙사육일기>
- 필자 : 권영대, 김세암(서울대 명예 교수)
- 내용 : 필자는 1974년 1월 15일부터 원앙 5개체를 사육하면서 그 생태적 과정을 사육일지 형태로 정리한 내용이다. 동년 3월 18일 청와대로 다른 학자들과 초청을 받은 자리에서 필자는 박정희 대통령 부부에게 사육에 성공하면 원앙을 보내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이행하기도 전에 영

부인께서 고인이 되신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제 20호(1977년 12월 발간)

- 주제 : <들새를 보호하자>
- 필자 : 김현규(본 협회 이사)
- 내용 : 필자는 도시생활을 하며 야생 조류를 사육하면서 야생조류와 인간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어떤 새에게 어떤 먹이를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 등을 자세히 소개하며, 먹이 주는법, 물주기, 유실수 심기, 인공둥지상자 달기 그리고 천적피하기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 제 22호(1977년 12월 발간)

- 주제 : <인공소상(人工巢箱) 가설의 필요성>
- 필자 : 김상욱(임업시험장 임업연구원)
- 내용 : 필자는 인공소상을 창안하여 보급한 역사적 배경, 인공새집을 이용하는 조류, 인공소상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그것에 야외에 달아주는 법은 물론 실제로 임업시험장을 비롯한 국립공원내에 인공새집을 설치 후 이용을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 제 27호(1979년 8월 발간)

- 주제 : <희귀동물 소개- 산양>
- 필자 : 원병휘(동국대 명예교수)
- 내용 : 천연기념물 제 217호인 산양의 세계적인 분포 및 산양의 습성 및 형태를 자세히 소개하면서 1964년과 1965년 산양의 서식지인 설악산, 오대산, 대관령 그리고 태백산 등지에 폭설이 내렸을 때 주민들이 몽둥이로 600여 마리의 산양을 밀렵한 것을 개탄하고 있다.

◆ 제 32호(1980년 10월 발간)

- 주제 : <두루미의 생태>
- 필자 : 구태희(경희대 전임강사)

- 내용 : 두루미류의 세계적인 서식실태와 우리나라에서의 시대상황에 따른 개략적인 월동 및 번식실태를 설명하고 있다. 보호대책으로 칠원 두루미 월동지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서식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얼지 않는 식수원도 중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재두루미 월동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강 하류의 칠면초나 수송나무 등이 아주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 제 42호(1983년 6월 발간)

- 주제 : 절멸의 그늘에 선 호랑이
- 필자 : 오창영(서울대 공원 동·식물과장)
- 내용 : 필자는 지구상의 호랑이의 분포 및 분류학적인 설명과 함께 지역별 개체수와 그 동안의 포획 된 호랑이의 개체수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호랑이의 야생에서의 생태적인 면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한 때는 동물원에 전시하기 위해 야생개체를 생포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사육기술의 발달로 오히려 생산이 과잉 상태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야생에서는 여전히 멸종위기에 처해 가고 있음도 강조하고 있다.

◆ 제 45호(1984년 4월 발간)

- 주제 : <歐美의 철새보호전략>
- 필자 : 원병오(경희대 교수)
- 내용 : 미국은 한 세기 이전에 철새에 대한 보호대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강구해 왔으나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 나그네비둘기의 대이동 군이 멸종하면서 시작되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1900년대 북미주 전체를 규제하는 법이 별다른 반대 없이 국회를 통과 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는 달리 유럽에서는 영국이 1869년 처음으로 바닷새의 보호법을 제정하였고 1880년에는 들새의 사냥금지법이 제정 되는 등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고 기술하고 있다. 필자는 결론에서 철새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 수단으로 1) 최소한의 면적을 자연보호지구로 남길 것 2) 총기 및 독극물에 의한 밀렵을 근절 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 할 것 3) 야생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최소한의 윤리적인 의무를 이행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 제 48호(1984년 12월 발간)

- 주제 : <흑두루미의 신 도래지>
- 필자 : 원병오(경희대 교수)
- 내용 : 지구상에 약 5,000여 개체만이 생존 하리라 여겼던 흑두루미가 대구의 강상영 씨(조류 사진작가)의 사진 제보로 그 도래지가 확인 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그 후 본인도 1987년 필자와 함께 현장을 답사하여 흑두루미의 우아한 비상에 넋을 놓고 바라보았던 기억이 생생하다.

◆ 제 56호(1986년 12월 발간)

- 주제 : 한강생태계의 변화와 앞으로 이용관리-철새를 중심으로-
- 필자 : 원병오(경희대학교 교수)
- 내용 : 한강의 개발이 철새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1) 한강하구에 도래하였던 2,000여 마리의 재두루미는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 2) 봄·가을 습지와 고수부지에 도래하였던 도요, 물떼새류와 명금류들이 자취를 감추었다.
  - 3) 강변의 둔치에서 번식하였던 흰뺨검둥오리도 번식지를 잃고 자취를 감추었다.
  - 4) 강변의 둔치에서 취식하던 수면성 월동 조류는 발붙일 곳을 잃고 떠나버렸다.
  - 5) 얕은 물에 내려앉던 섭금류는 수심이 깊어 발붙일 수가 없게 되어 취식 및 휴식공간이 협소해 졌다.
  - 6) 수면성 수금류(陸鵞類)의 월동지가 된 서울 수역. 등을 강조하고 있다.

◆ 제 59호(1987년 12월 발간)

- 주제 : 가창오리 20,000대군의 새로운 월동지가 된 주남저수지
- 필자 : 원병오(경희대학교 교수)
- 내용 :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인 가창오리 20,000여 무리가 경남 창원군 주남저수지에서 월동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 제 60호(1988년 4월 발간)

- 주제 : 희귀동물의 현황 및 보호대책
- 필자 : 원병오(경희대학교 교수)
- 내용 : 한국에서 시급히 보호가 요구되는 조류 및 경제적 가치에서 보호되어야 할 조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 사는 포유류 중 보호대상과 수렵대상 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보호대책으로는 1) 적색자료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2) 자연보호지역 및 야생동물 보호지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3) 인공사육을 통한 복원 예서는 ① 인공수정 ② 속임수(보충산란 유도) ③ 대리 어미새 ④ 왕성한 번식생명기간 ⑤ 포유류는 유전적 다양성 보존상 100두 이상 필요 ⑥ 동물원의 인공번식 기능 필요성 등 4) 야생조류와 인공식재 등을 언급하고 있다.

◆ 제 61호(1988년 7월 발간)

- 주제 : 노랑부리백로(*Egretta eulophotes*)의 신번식지, 신도
- 필자 : 원병오(경희대학교 교수)
- 내용 : 1987년 8월 경기도 용진군 북도면 장봉리 서쪽 약 20.5 km에 위치한 신도에서 노랑부리 약 400여 마리가 집단 번식함을 설명하고 있다. 이 곳은 지구상에 생존하는 최대의 노랑부리백로 집단으로 지구상 생존 개체의 약 80%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재청은 종 자체와 신도 번식지(섬)를 각각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 제 65호(1989년 3월 발간)

- 주제 : 수금류의 월동지 -주남저수지 일대
- 필자 : 김진한(산림청 임업연구원)
- 내용 : 필자는 경남 의창군 동면 산남리 및 용산리 등 주변 지역을 오리류, 기러기류, 고니류 등을 포함하는 수금류(특히, 가창오리, 큰 고니, 고니, 기러기) 등이 월동하는 곳으로 자연보호지구 대상으로 추천하고 있다. 또한 그는 람사르(이란)와 헬리겐 하펜(독일) 등 국제 습지학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1) “국제적 이동경로 상에서 한 종 또는 두 종이상의 수금류나 섭금류 집단이 최소한 1%를 부양하는 습지와 2) 20,000개체 이상의 섭금류와 10,000개체 이상의 수금류를 부양하는 습지는 국제적으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주남저수지는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므로 시급히 특별보호지구로 지정 보호·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제 73호(1991년 3월 발간)

- 주제 : 한국의 희귀 및 위기에 처한 포유류의 실태
- 필자 : 우한정(임업연구원 전임연구원)
- 내용 : 필자는 국제자연보존연맹(IUCN) 중보존 위원회가 정하여 공표한 적색자료목록에 등재 된 종류와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에 수록 된 종류 그리고 천연기념물로 지정 된 종, 환경변화로 사라져 가는 종, 한약 및 강장제로 남획되는 종 그리고 독극물로 감소되는 종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선정된 한국의 희귀 및 위기에 처한 포유류를 기재하고 있다.

<희귀종>

붉은박쥐, 검은토끼박쥐, 빨박쥐, 긴가락박쥐, 하늘다람쥐, 바다사자, 물범, 흰수염고래

<취약종>

고슴도치, 삿, 쇠고래, 대륙목도리담비

<위기종>

늑대, 여우, 곰, 표범, 흰긴수염고래, 수달, 사향노루, 산양

◆ 제 74호(1991년 6월 발간)

- 주제 : 한국산 조류 중 보호의 우선순위 결정
- 필자 : 원병오(경희대학교 교수)
- 내용 : 필자는 중 보호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많은 구성요소를 이용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도록 다소 변경하여 한국산 조류보호에 대해 우선순위 결정을 시도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 제 76호(1991년 12월 발간)

- 주제 : 겨울철의 야생동물 보호
- 필자 : 오창영(서울대 공원 연구원)
- 내용 : 필자는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중요 포유류 및 조류들에 대한 겨울철 보호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월동조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밀렵을 막아야 하고, 질병 및 독극물의 중독을 피하며 폭설에 대한 피해와 구조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 제 88호(1994년 12월 발간)

- 주제 : 야생조수의 증식과 방사
- 필자 : 우한정(자연보존협회 사무총장)
- 내용 : 야생 조수류의 인공증식 방사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 및 유럽 등지의 방사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미국 들소, 유럽들소, 몽고 야생말, 따오기, 두루미, 황새, 알바트로스,

미국흰두루미 및 하와이 기러기 등을 예로 들고 그에 대한 그 동안의 인공증식 성과와 앞으로의 예상을 피력하고 있다.

◆ 제 97호(1997년 3월 발간)

- 주제(1) : 천연기념물 지정과 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필자 : 원병오(경희대학교 명예교수)
- 내용 : 필자는 자연생태를 복원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실천 강령을 강조하고 있다.
  - 1) 존중하는 주요자연생태계를 최대한 성역화 해야 한다.
  - 2) 지정 된 천연기념물은 충분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의 수립이 필요하다.
  - 3) 중·대형 종은 중 자체를 지정하고 소형 종 등은 서식지자체를 포함하여 지정하여 보호관리 해야 한다.
  - 4) 민간단체(NGO)를 법인체로 발전시켜 활동 할 수 있도록 한다.
  - 5) 구조센터를 설치하여 재정지원을 통해 전문수의사로 하여금 치료 및 구조체제를 구성토록 한다.
  - 6) 주요 철새도래지를 정화하여 질병으로부터 예방토록 한다.
  - 7) 전문가의 양성과 일반의 계도 교육에 노력해야 한다.
  - 8) 관계당국은 천연기념물의 보호를 위해 중·장기 실천 강령을 지체없이 마련하여 실천에 옮겨야 한다.

◆ 제 102호(1998년 6월 발간)

- 주제(1) : 멸종위기 야생동물 관리의 실과 허
- 필자 : 김수일(한국교원대학교 생물교육과)
- 내용 : 필자는 우리나라의 자연생태보전의 후진성을 지적하고 있다. 즉, 야생동물의 보호 및 보전 관리에 관한 한 다른 개도국나 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후진성을 나타낸다

고 설명하고 있다. 1) 전문성의 부족 2) 대부분 국민의 인식부족 3) 적극적 조치의 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다. 필자는 야생동물의 복원 증식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었으며 이 분야에 능력 있는 학자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일찍 고인이 되어 같은 길을 가고 있는 한 사람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 제 104호(1998년 12월 발간)

- 주제 : 박쥐 보호를 위한 제언
- 필자 : 최병진(국립환경연구원 환경생물과)
- 내용 : 필자는 우리나라에서 박쥐의 보호에 필요한 제언을 하고 있다. 그는 박쥐가 사라지는 원인으로 1) 박쥐가 살 수 있는 서식지 감소, 2) 농약의 과다살포에 의한 박쥐의 주먹이인 곤충의 오염, 3) 그리고 민간요법에 의한 무분별한 남획을 들고 있다. 박쥐보호방법으로는 1) 박쥐를 위한 인공집 달아주기, 2) 자연 및 탄광등 동굴입구의 완전폐쇄 대신 가로 철망(폭 50~75 cm, 높이 15 dm 이상) 설치, 3) 무분별한 채취에 대한 단속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 제 106호(1999년 6월 발간)

- 주제 : 외래 포유동물의 유입현황과 관리방안
- 필자 : 최병진(국립환경연구원 환경생물과)
- 내용 : 필자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래 포유동물의 실상을 소개하고 있다. 그는 1) 외래생물의 개념정리 2) 왜래 동물의 유입 경로 3) 정착과정 4) 외래종 확산의 문제점 및 관리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제 109호(2000년 3월 발간)

- 주제(1)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현황과 보호방안
- 필자 : 이상돈(한국 환경정책 평가원)
- 내용 : 필자는 우리나라 야생동물의 멸종 위

기종의 위협요인을 분석하고 자연환경보전법에 명시된 멸종위기 야생동물에 대한 분류군, 주요서식지, 위협요인, 천연기념물 지정 여부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 주제(2) : 야생동물 수렵제도와 야생동물 중 다양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향
- 필자 : 우한정(한일야생동물 연구소)
- 내용 : 필자는 야생동물에 대한 정의를 소개하고 1) 야생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과 보완대책 2) 수렵제도 3) 수렵조수의 종류와 포획제한 수량 및 엽구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또한 1) 세계, 일본, 한국, 중국의 멸종위기종, 취약종 및 희귀종의 실태를 설명하며 2) 야생조류에 관한 국제협력 등을 기개하고 있다.

◆ 제 114호(2001년 6월 발간)

- 주제 : 제주도의 조류와 보전
- 필자 : 박행신(제주대학교 과학교육과)
- 내용 : 본 호는 제주도에 대한 특별호로 필자는 제주도의 조류현황과 그 동안의 제주도 조류의 연구사 및 보호 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현재는 고인이 되셨으나 그동안 제주도의 조류 조사 및 보존 관리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 제 124호(2003년 12월 발간)

- 주제 : 도시생태계의 야생동물 관리방안
- 필자 : 이상돈(이화여자대학교 공과대학 환경학과)
- 내용 : 본 호는 주로 도시생태계의 특집호로 구성되어 있다. 필자는 도심의 야생동물 서식지의 특성으로서 파편화, 이동로 그리고 토양과 식생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제 130호(2005년 6월 발간)

- 주제 : 기후변화가 조류생태에 미치는 영향

- 필자 : 이두표(호남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
- 내용 : 본 호는 기후변화와 생태계란 주제의 특집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자는 기후변화(온난화)가 조류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1) 이주행동의 변화, 2) 산란시기의 변화 및 조류 분포의 변화, 3) 조류에 대한 부가적 영향 등을 소개하고 있다.

◆ 제 148호(2009년 12월 발간)

- 주제 : 한국의 조류학사
- 필자 : 원병오(경희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명예회장)
- 내용 : 본 호에 기재된 내용은 1956년부터 최근까지 주로 필자의 조류 관련 연구사를 시대별로 정리한 내용이다. 많은 조류의 표지방조사업은 물론 국제심포지움 및 포럼 참가 등을 정리하였다. 아울러 국제조류보호회의(ICBP) 및 국제자연보호기구(IUCN) 그리고 국제조류학회(IOC)에 가입 및 참가하였음을 기술하고 있다. 한국조류학회를 창립, 경희대학교 자연사박물관을 설립, 한국조류연구소도 설립하였으며 한국조수보호협회를 설립하였다. 한편 DR.H.J. Coolidge의 막대한 지원과 박정희 대통령의 지대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 자세히 기재하고 있다.

◆ 제 155호(2011년 9월 발간)

- 주제 : 조류서식지로서 중요한 연안습지 순천만
- 필자 : 차인환(한국물새네트워크)
- 내용 : 필자는 순천만의 일반적인 특징과 함께 동물상을 소개하고 그 중 주요 월동조류인 흑두루미에 대한 개체수를 소개하고 있다. 그는 순천만 갯벌과 조류의 중요성 관계를 언급하며 순천만이 조류서식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순천만의 전반적인 환경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 결 론

제 2차 세계대전과 8.15 해방 그리고 6.25 사변 등 대 사건을 거친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처럼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나라도 드물다고 한다. 이것은 강인한 민족정신, 근면한 국민성, 명석한 예지를 가진 우리조상들의 덕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금수강산의 자연환경에서 여우와 늑대가 사라지고 황새와 따오기 및 크낙새가 우리주변에서 사라지는 등 자연생태 관리 및 야생동물의 보존에 대한 잘못된 시행착오도 겪어왔다. 그렇지만 이제 대다수의 국민들은 야생조수 보존의 의미와 그 필요성을 알고 있는 현명함을 갖고 있다. 전후 잿더미 속에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를 부흥시킨 선조들의 희생의 결과이었고 오늘날의 우리자연환경 보존을 이만 큼이나 지탱해온 것은 그 동안 본 한국자연환경보존협회가 50여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많은 선배 학자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한 1세대 선배 학자들은 이제는 대부분은 고인이 되었거나 생존해 계신 분들도 대부분 8~90대의

고령이 되셨다. 비록 창립초기에 미군들의 도움을 받은 연구비였지만 이를 이용하여 비무장지대는 물론 우리나라 도서 지방 곳곳을 누비며 자연환경을 조사하며 자료를 정리하여 왔다. 박정희 전 대통령 영부인 이셨던 고 육영수 여사의 본 협회 초대 총재님과 박근혜 대통령의 2대 한국자연보존협회 총재 등을 모시고 눈부신 업적과 우리나라 자연보존의 한 획을 그은 업적들을 남겼다. 회원들은 대학이나 관련 정부 기관 또는 연구소에서 훌륭한 업적과 경력을 가지신 분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시류에 야합하지 않고 다소 보수적이며 고집스런 면도 있었지만 회원들의 자연보존에 대한 변함없는 소신으로 이어진 그 사명감은 아직까지 변하지 않고 있다. 최근 본 협회를 포함한 많은 NGO단체들이 우리나라의 환경보존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본 협회는 초심의 목적을 위해 서두름 없이 우직함으로 우리나라 자연환경 보존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는 본 협회의 변함없는 활동과 그 간의 업적을 쌓아오신 선배 협회 가족 모두에게 본 지면을 통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